

체류관광 활성화 · 지역예술 육성 논의

숙박세일 페스타-지역특별기획전 참가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과 간담회 갖고 의견 청취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 숙박상품 구매 관광객 5만원 할인쿠폰 제공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도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체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하안양읍에서 문화관광재단과 머리를 맞췄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도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체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하안양읍에서 문화관광재단과 머리를 맞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 이경운)과 간담회를 갖고 체류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우리 전북이 보유한 역량과 잠재력, 문화자원을 강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문화관광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지역특별기획전'에 참가, 전북 숙박상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에게 5만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숙박할인 적용기간은 5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며, 할인 쿠폰은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 동안 발급받을 수 있다. 한 쿠폰 당 전북자치도와 재단은 2만원을, 한국관광공사는 3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발급 시작일인 2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1인 1매에 한해 쿠폰이 발급되며, 7만원 이상의 숙박 예약 후,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지 않는 쿠폰은 자동 소멸되며, 소멸된 이후 쿠폰은 재발급이 가능하다.

숙박 할인쿠폰은 아날자, 여가어때, G마켓, 11번가, 티몬, 쏘카 등 30개 사, 32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쿠폰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여행가는 달(korean.visitkore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특별 기획전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광객이 전북의 다양한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어린이공연장, 음악 낭독극 '어린왕자' 공연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는 오는 6월 8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음악 낭독극 '어린왕자'를 공연한다.

이 별을 돌아다닌 후 지구로 와 뱀, 여우, 조종사와 친구가 된다. 어느덧 여우와 어린 왕자는 서로를 길들여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꼭 필요한 존재'로 남는다.



특히 이번 음악 낭독극은 생동감 넘치는 소설 낭독에 아름다운 음악 선율, 샌드 애니메이션이 더해져 오감을 자극하는 입체적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음악 낭독극 '어린왕자'는 어린이들이 순수함과 사랑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다는 교훈을 연령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게 진행된다.

사전 예약은 5월 29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한 지정좌석제로 진행되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약 가능하며 관람료는 없다.

어린왕자는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不時착한 조종사가 한 소년을 만나게 되어 이야기가 시작된다.

홍양숙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80년 넘게 사랑받아온 생텍쥐페리의 세계적인 명작 어린왕자를 새롭게 다채로운 방식이 접목된 공연으로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며,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지는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장수한누리전당서 찾아가는 예술극장 공연 '쓰리고 쇼! 성료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예술극장 공연 '쓰리고 쇼!(THREE GO SHOW)'가 지난 23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들과 장애인보호작업장 구성원 등이 관람에 나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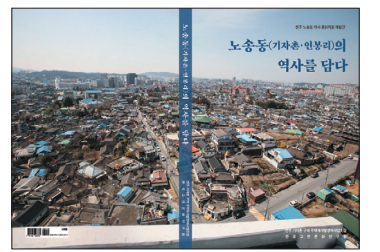


찾아가는 예술극장 공연 '쓰리고 쇼!'가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노송동 역사 · 문화자원 기록하다

전주대, '노송동(기자촌 · 인봉리의 역사를 담다)' 발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전주시 기자촌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협력해 '노송동(기자촌 · 인봉리)의 역사를 담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책은 전주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이 참여한 프로젝트인 '2020년 2학기 대학혁신지원사업 리빙랩(책임자 이정숙 교수) 마을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재개발로 사라져 가는 기자촌과 인봉리를 포함한 노송동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4년 동안 기록, 2024년 5월 완료했다.

노송동은 예전부터 기자, 공무원, 교수 등이 살았던 주택지로서 전주의 중심부에 있었던 지역이다. 옛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영화 '로드투비', 드라마 '엘리스',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의 촬영지로도 주목받았다.

이에 프로젝트팀은 재개발로 인해 사라져 가는 노송동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시청, 노송동 주민센터, 전북일보, 전주영상위원회, 풍남초등학교, 전주동초등학교가 소장한 역사 자료, 신문 기사, 사진, 영상과 주민 인터뷰

등을 활용해 기록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양희진(사학과) 대학원생은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옛 전주역, 인봉 저수지, 공실운동장 등을 사진 자료로 확인하고, 또 인터뷰를 통해 노송동 지역민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스토리를 발굴할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